

용진관 개관기념

엄재이 유씨氏

모노드라마

일시: 2019.12.13.(금) 14:00
장소: 용진관(체육관)

용진중학교

가슴저린 재미! 별 다섯 개의 감동연극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장 소 : 용진중학교 용진관(체육관)

주 최 : 용진중학교
출 연 : 고조영
입장완료시간 : 오후 1시 50분

지역 관객들에게 가슴 저린 감동과 재미를 안겨 준, 웰 메이드 연극 ‘염쟁이 유씨’가 아주 특별히 우리학교에 찾아옵니다.
‘염쟁이 유씨’는 지난 2012년 전북에서 초연을 한 이후, 무대 위에서 태워지는 배우의 영혼을 통해 객석에 앉아있을 많은 분들이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공연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대대로 사체 수습을 업으로 해 온 ‘염쟁이 유씨’의 독백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웃음과 눈물 속에서 감동적으로 버무려낸 작품입니다.
‘죽음’이라는 소재로 인해 극이 무겁고 암울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용진중학교 교육가족 및 용진지역 주민들에게 익살스러운 풍자와 해학이 작품 내내 가득해 시종일관 웃음을 터트리게 될 것이며, 동시에 죽음과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도 될 것입니다.

시놉시스

유씨는 조상 대대로 염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난 염쟁이다. 수많은 죽음을 접해온 그가, 어느 날 일생의 마지막 염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에게 연락을 한다. 그리고 기자에게 염의 절차와 의미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어왔던 사연들을 풀어놓는다. 조폭귀신과 놀던 일, 오로지 장삿속으로만 시신을 대하는 장의대행업자와의 관계, 아버지의 유산을 둘러싸고 부친의 시신을 모독하는 자식들의 작태, 자신이 염쟁이가 되었던 과정,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야기 등등. 마지막 염을 마친 유씨는 ‘죽는 거 무서워들 말어,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어…….’ 라는 말을 남겨놓고 무대를 떠난데…….